

# 李滉의 「獨遊孤山」과 李野淳의 「孤山九曲」에 대하여

임노직\*

## 차례

- I. 머리말
- II. 고산 산수와 시문 창작
- III. 이황의 「獨遊孤山」 분석
- IV. 이야순의 「孤山九曲」 분석
- V. 도산구곡의 설정 과정과 영향 관계
- VI. 맺는말

### 【국문초록】

고산구곡은 청량산 가송협의 절벽 아래에 자리한 고산정 일대에 설정된 계류형 구곡이다. 고산정 주위는 외산과 내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건너편에는 獨山이 우뚝 솟아 奇絶한 풍치를 이룬다. 낙동강의 상류로서 이곳 낙천은 한국 유교가 꽃을 피운 장소이다. 퇴계는 바로 낙천가의 도산서당에서 많은 인재를 길러 영남 학파라는 큰 학맥을 형성했다.

이 낙천의 상류에 설정된 고산구곡은 퇴계의 철학이 완성된 사색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거니와, 오늘날에도 피폐한 심성을 일깨우는 구도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곳이다. 퇴계는 46세 무렵 귀향해 있을 때 ‘홀로’ 이곳을 찾아 노닐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발견할 때마다 그림 같은 시를 남겼다. 이것이 바로 퇴계의 산수관과 미의식이 응축되어 있는 「獨遊孤山」이란 작품이다. 그러나 ‘고산구곡’이란 명칭은 이황의 후손인 이아순에 의해 처음으로 설정되었고 그는 구곡설정과 아울러 「孤山九曲」 시도 지어 그 의미를 밝혔다.

이 글의 목적은 「獨遊孤山」과 「孤山九曲」을 각각 분석하여 두 시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문학의 계승과 발전적 관점에서 두 시의 상호 영향관계는 조선후기 구곡 시가의 擬作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향촌 사람들에 의해 이상적 문학 양식으로 수용된 구곡시가는 창작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구곡 설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도산구곡의 경내에 고산구곡이나 大明山九曲 같은 중첩된 구곡 설정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오컨대 李滉의 「獨遊孤山」은 영남학파의 학자들에게 도산구곡 설정의 명분을 제공했으며 李野淳의 「孤山九曲」은 도산구곡을 중심으로 전개된 퇴계학파의 구곡시가의 문학사적 맥락과 전통, 계승 과정을 살피고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준거가 되는 주목되는 작품이다.

#### 주제어

孤山, 孤山九曲, 山水, 李滉, 李野淳

## I. 머리말

인간은 고립된 개별 타자가 아니라 생명 문화의 지속적 존재로서 자연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존재가 관계 설정에 있어 연관되어 있다고 자각하면 인간이라는 존재와 우주, 자연과의 상호 교감에 눈을 뜰 수

있다. 산수는 바로 자아의 성찰을 통하여 자연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근원적 공간이다. 자연은 포착할 수 없는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원천으로써 생명과 생성에 대하여 보편성을 담보한 물음을 던진다. 특히 자연 가운데 유동성을 상징하는 물의 흐름은 전통 사회의 지식인들의 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찌 보면 인간이란 위대한 자연 현상에서만 겸손해지고 영적 존재감을 체험할지 모른다.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은 표상적 세계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생성과 변화를 볼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하여 내적 변화를 환기한다. 자연은 순환하고 반복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생성이 담겨있으며 자연 속에서 자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은 우리를 무한한 다양한 세계로 인도하며 생성이라는 절대적인 긍정의 측면에서 생태 중심의 윤리적 전환을 요구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같은 자연환경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내적 성찰을 통해 보다 겸손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九曲 시가에는 자연 요소가 어우러져 만든 환경에 대한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현상이 포괄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및 인간이 자연스럽게 얻은 본성의 실현에 관한 자연관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천은 낙동강의 상류로 이곳에서 한국 유교가 꽃을 피웠다. 낙동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황지는 이곳에서 지척의 거리에 위치한다. 물이 모여 비로소 시내다운 시내를 이루는 낙동강의 상류에서 한국 유교가 굳건한 뿌리를 내린 것이다. 퇴계는 이곳에서 제자를 가르쳐 영남 유림이라는 큰 학맥을 형성하는 밑바탕을 일구었다. 낙천 가운데 청량산 절벽

아래 가송협에는 거울 같은 수면에 물그림자를 드리운 고산정이 있다. 고산구곡은 바로 가송협의 절벽 아래에 자리한 고산정 일대에 설정된 것으로, 정자의 주위는 외병산과 내병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강 건너에는 송림과 함께 獨山이 우뚝 솟아 절경을 이루고 있다. 낙천은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빚어냈는데 그 으뜸은 청량산 초입의 고산구곡 지역이다. 산과 물이 만나 펼쳐진 선경의 고산구곡은 조선시대 수많은 유학자들이 도산서원을 찾아 퇴계를 만나던 길이며, 또한 퇴계가 걷던 길을 따라 세월을 넘어 여전히 발길이 이어지는 현재적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본고는 청량산 동구의 고산 일대를 배경으로 지어진 「獨遊孤山」 9수에 나타난 퇴계의 산수관과 미의식을 탐구하고, 이야순에 의해 처음으로 설정되고 창작된 「孤山九曲」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시의 내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계승과 발전을 전제로 擬作적 관점에서 두 시 사이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도산구곡을 중심으로 전개된 퇴계학과의 구곡시가의 문학사적 맥락과 전통, 계승 과정을 살피고 이해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고산 산수와 시문 창작

태백의 황지에서 발원했지만 청량산을 거치면서부터 예안에 이르기까지의 물줄기는 특히 '洛川'이라 부른다. 신익황(1672~1722)에 따르면, 이

황이 강도하고 서식하던 지역은 奇勝과 幽絶이 주희의 무이 및 운곡과 서로 견줄만한 곳이다.<sup>1)</sup> 이 낙천의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도산서당에서 이황은 조선의 유학을 진작하여 찬란하게 꽃피웠다. 이황은 일생 동안 온전히 주희를 배웠으며 시문에 이르러서도 모두 주희를 본받아 도처에 남긴 시문은 辭旨와 理趣가 또한 주희와 방불했다. 그런 점에서 이황이 머물러 강학하던 도산서당과 청량산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주희의 무이산이나 운곡정사와 다를 바 없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었다.

이 글에서 논의의 중심지로 삼은 고산 일대는 도산9곡 가운데 제8곡에 해당되며 청량산의 동구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른바 하늘이 갈 무리고 땅이 숨긴 곳이다. 자연히 시인 묵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아울러 문학 창작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문화사적 측면에서 '孤山의 山水'라 불려도 좋을 만큼 독특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황의 문인인 금난수(1530~1604)는 일찍부터 고산의 경치에 매료되어 물가에 별서를 지어 장수처로 삼고 이곳의 풍류를 즐겼다. 그러자 이황은 시를 지어 흥취를 기탁했으며 또한 산수를 나누어 정자를 짓고자 했다.<sup>2)</sup> 금난수의 아들 琴格은 「日洞錄」을 지어 고산의 풍광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洞府가 깊숙하고 조용하며, 봉우리와 뒀가 치솟아 수려하다. 마치 異物이 와서 경관을 도와 준 것 같다. …… 그 마을은 그윽하나 적막하지 않으

1) 申益愷, 『克齋先生文集』卷10, 「謹書雲谷陶山徽音後」, “其棲息講道之地, 如退溪陶山清涼等處, 奇勝幽絶, 可與武夷雲谷相埒.”

2) 李家淳, 『霞溪先生文集』卷7, 「遊孤山亭記」, “孤山亭在安東之清涼山下, 山水最奇絶處, 實惺齋琴先生藏修之所也. 自先生之有斯亭也, 吾先祖嘗與來往而遊賞, 唱酬而寄興, 亦嘗欲分山共水而置一庵焉, 今於先祖遺集可考也.”

며, 험준하기는 해도 비좁지 않으니 인자요산과 지자요수의 조건을 구비했다. 참으로 은자가 살아갈 만한 낙토 가운데 하나이다. 아마 36동천의 하나일 것 같다. …… 모두 다 뜻에 맞아서 소요를 하며 스스로 기뻐할 수 있다.”<sup>3)</sup>

금각은 금난수의 막내아들로 하곡 허봉의 시 제자이기도 한 문인이다. 불행하게도 18세로 요절하고 말았지만 소시에 이미 조정의 득실과 세상의 인사를 모두 파악한 천재적 인물이었다. 그는 은자가 거쳐하여야 산수의 즐거움을 누리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고산의 지리적 경관을 적시하는 한편, 자연과 인간의 의존적 관계에서 고산 지역이 아버지 금난수 때문에 명승이 된 것을 서술하였다. 이후 고산 지역은 선대의 藏修處이자 菟裘地로서 봉화 금씨 집안의 자제들에게 幽賞과 강학처로 자주 이용되었다.<sup>4)</sup> 고산으로 이주한 인물도 있으니 금난수의 8세손 되는 琴書述(1791~1872)이다. 그는 선배들이 향유했던 고산 풍류의 호탕함과 韻格의 鏗鏘함에 주목하고, 관련 시문을 수집하여 『孤山志』를 엮었다. 고산의 기이한 산수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황이 지은 제영시와 선배들이 창수한 작품을 抄集한 것으로, 앞에는 「청량제영」을 실었고 끝에는 「도산잡 영」을 수록했다.<sup>5)</sup> 편집 체제로 보면 청량산 내의 洞天으

3) 琴格, 『惺齋先生文集』附錄, 「日洞錄」, “洞府幽復, 峰巒聳秀, 若有異物來相之焉.(中略) 其爲洞也, 幽而不閑, 峻而不狹, 兼山水樂仁智, 眞所謂考槃之樂地, 其亦三十六之一乎.(中略) 皆可以適意, 徜徉以自怡矣.”

4) 琴鏞夏, 『鶴山文集』卷5, 「書清涼紀行詩後」, “紫雲峯下孤山亭, 卽吾家菟裘之地也. 自余弃之出入往來, 較一歲三之一, 每當紅綠披靡, 高秋爽朗之候, 遡潢洛而訪巢鶴, 降仙臺而挹清涼, 層巒疊嶂, 如鳥跂鶴立, 簪押簇擁, 不啻若墻外之冠髻, 則望河舟而送李郭者, 何須見其眉睫, 然後爲喬松也.”

5) 琴書述의 『素無軒集』 卷4에 「孤山志序」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고산지에는 청량산에 관계된 시가 56수, 고산에 관계된 것으로 퇴계시가 14수, 선배 및 가정의 제영이 116수, 그리고 고산 이하로 월란대 7곡 까지 관계된 퇴계시 17수, 「도산잡

로 고산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산을 고산의 회귀처로 삼았다. 사실 고산에서 도산에 이르기 까지 삼사 십리 사이에는 구비마다 바위마다 모두 퇴계의 자취가 남아 있다. 허목이 「淸涼記」에서 도산의 탁영담을 서술의 종결로 삼은 것도 섬세한 배려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고산의 풍경은 위에서 언급한 「일동록」을 비롯하여 하계 이가순의 「遊孤山亭記」, 연재 송병선(1836~1905)의 「自孤山至陶山」, 해주 남봉(1870~1933)의 「孤山亭山水記」에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또한 청량산을 유람하고 남긴 각종의 유산록에 단편적으로 전한다. 고산을 찾은 학자 가운데 지애 김협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주변의 기상에 놀라워하면서 속세의 인연이 저절로 소원해짐을 체험했고,<sup>6)</sup> 찬하 이해덕은 고산의 형성 과정과 고산정의 명명 유래에 대해 지리적 지식과 신화적 유추를 통해 고산의 기이한 절경에 찬사를 보냈다.<sup>7)</sup> 극암 류흠목은 강 건너편에서 소나무 사이로 은은히 비치는 고산정사를 바라보면서 이황이 일찍이 品題한 사실을 떠올리며 감동에 젖었고,<sup>8)</sup> 석주 이상룡은 월명담을 굽어보면서 水雲臺의 벗겨진 이끼 틈에서 옛날 이황이 유람하면서 남긴 자취를 찾았다.<sup>9)</sup> 한

---

영」72수, 1,582자의 「도산기」 등이 실려 있다. 고산지 말단에 「도산잡영」이 첨부된 이유는 스승 이황을 의귀처로 삼은 금난수의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한 편자의 배려에 기인한다.

- 6) 金協, 『芝厓遺稿』, 「遊淸涼山記」, “今身親歷見丹崖翠壁, 氣象萬千, 草木溪澗, 景致無窮, 暫時遊玩, 便令塵緣自疎矣. 亭前有古梅, 寒叢枝幹已老, 意者惺翁之手殖者歟.”
- 7) 李海德, 『餐霞遺稿』, 「淸涼記」, “微見兩岸, 削壁截然, 頂上松檜籬立, 殊覺絕境. (中略) 周覽諸勝, 蓋亭在江左, 而有獨山在江右, 千尋翠壁, 隔水相對, 亭之得名孤山, 以此, 而擅以名勝, 亦在此. 然山之左而右者, 本是一脉而兩峙者也. 豈是泊鴻時劈破者耶. 尤可奇.”
- 8) 柳欽睦, 『克庵文集』, 「遊淸涼山錄」, “此爲太白南來, 最初關稍寬處也. 前有翠壁巉巖, 一帶長江, 滾滾西流. 其傍有數椽屋子, 隱映於松檜間, 此則琴惺齋孤山精舍, 而老先生嘗品題者也. 但恨水深不得渡, 徒歎賞而起.”
- 9) 李相龍, 『石洲遺稿』, 「遊淸涼山錄」, “取尋眞路, 踰五老嶺, 挾孤山島, 俯月明潭, 青螺一點,

학자 회산 강신혁도 이곳에 들러 ‘참으로 그림과 같은 경치’라 공감하면서 명불허전의 ‘第一江山’임을 인정했다.<sup>10)</sup> 이외에도 고산 및 주변 경관에 대한 기록은 부지기수로 전하거니와 이에 대한 시문이 풍부하게 전하는 이유는 정자가 청량산에 가는 길목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요인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정자 주인의 스승인 이황이 특별히 사랑했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금난수와 이황 간의 관계는 학문적 진리 탐구에서 보다 고산을 매개로 한 賞自然의 관점에서 보다 접근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된다.

### Ⅲ. 이황의 「獨遊孤山」 분석

조선시대 예안현에 속한 도산 일대는 유교 문화의 현장으로 서원과 누정 등의 유적이 널리 자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백운지에서 청량산에 이르는, 오늘날 ‘퇴계 예던길’이라 부르는 강변길은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황이 오가며 보고 즐겼던 자연 경관이 오롯이 남아 있는 곳이다. 이황은 평생 이 강변길을 대여섯 번 왕래하면서 한 폭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극찬했다. 이황이 시를 읊미하면서 소요하던 이 길은 오늘

---

斗絶爲十丈壁。其衍爲麓崎嶇，水由盤石過，遇滙爲淵，清澈如儲油翠玉盤，巖上鬱鬱蒼松盤屈，躑躅數朶，窺出杈杈間，燃紅滴青，和醮在水，石上刻水雲臺，臺上舊有退陶手筆同遊錄及短絶一詩，蓋勝迹也，而剝落苔蘚中，依依不可辨。”

10) 姜信赫, 『檜山文稿』, 「遊清涼山錄」, “山雨微飄, 忽清風一陣, 纖雲掃迹, 望見孤山亭, 隱映於層巒絕壁之間, 可知第一山水, 因呼船渡水, 謁琴成丈, 登孤山亭. 亭是琴惺齋先生遺躅之地, 而外多先賢題品, 雲林泉石, 倍覺可敬也. 因憑軒而坐, 翠壁展屏, 蒸霞繞城, 清潭映其下, 老松倒其堤, 眞畫裏江山, 名不虛傳耳.”

날 위대한 선현을 찾아 나서는 구도자의 사색과 명상의 순례지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황은 타고난 기질도 그러하거나와 도를 실천하고 함양하는 공간으로써 남달리 자연을 사랑하고 즐겼다. 그는 자연 가운데서 도의를 벗하고 심성을 수양하면서 성인의 가르침을 밝히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겼다. 산림에 몸을 두고 고대의 성현을 사모했다는 그의 태도에서 자연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심원한 배려를 감지할 수 있다. 그는 산수가 아름답고 폭포가 쏟아지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몸을 빼내어 홀로 찾아가 완상하고 시를 읊고는 돌아왔다.<sup>11)</sup>

이황은 특히 丹砂의 북쪽 10리에 위치한 고산을 자주 유상했다. 日洞과 月潭이란 명칭이 말해 주듯 자연 환경이 낙천 일대에서 가장 수려한 때문이었다.<sup>12)</sup> 전설로는 洛江이 산을 안고 돌아 흐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大雷震이 일어나 蒼崖를 가르고 江流가 그 사이로 흘렀다고 한다.<sup>13)</sup> 이황은 이와 같은 고산을 유람하는 도중에 상사 李庇遠의 卜居遺址가 완연한 것을 보고 주인을 회상하며 슬픔에 젖기도 했다.<sup>14)</sup> 그러나 고산에 대한 진정한 유람은 1546년 46세 무렵 귀향해 있을 때 이루어졌다. 이황은 혼자서 고산에 가서 노닐다가 월명담에 이르렀는데, 그 길로 물을

11) 『良齋先生文集』卷6, 「溪山記善錄下」, “先生若有山水明麗, 瀑布倒流處, 無不抽身獨往, 玩詠而還.”

12) 『退溪先生文集』卷3, 「次琴聞遠孤山韻」, “君非出仕故無歸, 占斷烟霞自不違. 境絕更饒田壘關, 山孤唯稱鶴栖飛. 四時來往雙芒屨, 萬事榮枯一薜衣. 日月佳名吾所愛, 尋君時復玩餘輝.”

13) 『退溪先生文集攷證』卷1, “孤山在丹砂北十里, 琴惺惺齋藏修處. 俗傳, 洛江抱山迴流, 一日忽大雷震, 劈破蒼崖, 江流出其間故云.”

14) 『退溪先生文集』卷2, 「遊孤山」, “十年重到訪孤山, 綠水蒼崖照眼寒. 惆悵主人何處去, 空餘基築白雲間.”

끼고 산을 따라 내려와서 저녁에야 거쳐하던 퇴계에 도착했었다. 이 때 勝境을 만나 즉석에서 지은 시편이 모두 7언 절구 9수로 구성된 「獨遊孤山」이란 제목의 작품이다. 9수는 〈孤山〉, 〈日洞〉, 〈月明潭〉, 〈寒栗潭〉, 〈景巖〉, 〈彌川長潭〉, 〈白雲洞〉, 〈丹砂壁〉, 〈川沙村〉 등의 제목이 붙어 있다.<sup>15)</sup> 이황은 이후 경치 좋은 두 곳을 추가로 발견하여 이름을 짓고 이에 대해 시도 읊었다. 도산구곡의 제6곡에 위치한 ‘갈선대’와 ‘고세대’가 그것이다.

이황의 시편 가운데 「獨遊孤山」에 대한 후학들의 인식은 특별히 다른 바가 있었다. 申益愷(1672~1722)이 엮은 『陶山徽音』은 이황의 시작 가운데 ‘徽音’을 선집한 것으로 이정(1512-1571)의 『雲谷徽音』을 모방해서 지은 편저이다. 그 체제를 보면 「和飲酒」 20수, 「和秋懷」 12수를 編首로 해서, 「獨遊孤山」 12節, 「七臺三曲詩」, 「月瀾庵」 7絶, 「遊山書事」 11首, 「陶山雜詠」, 「山居四時吟」 16絶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이황의 시를 읊으며 낙천을 거슬러 올라 구곡에 까지 이르러, 천하의 至樂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 항상 이황과 같은 시대에 살지 못함을 시름으로 여겼던 그는 이황이 남긴 ‘徽音’을 발단으로 삼아 감발하고 흥기하고자 했던 것이다.<sup>16)</sup> 「獨遊孤山」의 첫 수로 수록된 〈孤山〉을 살펴보자.

何年神斧破堅頑 어느 해에 神斧로 굳은 바위 부수었나  
壁立千尋跨玉灣 천길이나 우뚝 서서 玉灣에 걸쳤고너

15) 『退溪先生文集』에 수록된 「獨遊孤山」의 원제는 「獨遊孤山, 至月明潭. 因竝水循山而下, 晚抵退溪, 每得勝境, 卽賦一絶」인데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獨遊孤山」으로 약칭한다.

16) 『克齋先生文集』卷10, 「謹書雲谷陶山徽音後」

不有幽人來作主 幽人이 찾아와서 주인 되지 않았던들  
孤山孤絶更誰攀 고산이라 이 절경을 누가 더듬을꼬

선계를 옮겨다 놓은 듯한 고산의 경관과 이곳 주인인 금난수를 찬미한 시다. 기구는 고산정 맞은편의 고산이 역겹의 세월에 물줄기에 의해 강제로 끊어진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조물주의 신묘한 솜씨를 비유한 神斧는 천지 창조의 한 장면을 극명하게 연상케 해준다. 민간에 전하는 말로는 낙강이 산을 안고 돌아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벼락이 쳐서 蒼崖를 갈라 버리자 강류가 그 사이로 흘러 고산이 끊어지게 된 것이라 한다.<sup>17)</sup> 翠屏이라 불리는 고산정 주변의 절벽은 강물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특히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황은 이러한 모습을 천 길이나 되는 높은 벼랑이 옥처럼 맑은 물굽이를 걸터앉은 형상으로 표현했다. 사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비유적인 묘사가 독자에게 현장적 사실감과 문학적 핏진성을 실감나도록 해 준다. 幽人은 여기에 정사를 짓고 은거 생활하는 금난수를 지적한 것인데 전구는 고산의 주인으로 제자를 예우하는 이황의 인품이 살며시 담겨 있다. ‘孤山孤絶’은 원래 소식의 시에서 그 전거를 찾을 수 있는데<sup>18)</sup> 고산의 절경과 금난수의 인품을 고도의 함축성을 지니며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孤絶’은 정자의 對案에 위치한 고산의 외면적 풍광과 아울러 화자의 내면적 정서까지 표현된 듯한 공감을 이끌어낸다. 1564년에 이황은 永陽 李大成, 鳳城 琴士任·琴

17) 『吾家山誌』卷1, 「山川臺庵集解第二」, “俗傳, 洛江抱山回流, 一日忽大雷震, 劈破蒼崖, 江流出其間, 截作孤山.”

18) 邵浩 編, 『欽定四庫全書』「坡門酬唱集, 卷1, “臘月遊孤山, 訪惠勤惠思二僧. 孤山孤絶誰肯廬, 道人有道山不孤.”

聞遠, 光山 金愼仲·金惇敍, 永嘉 權施伯, 金景龐, 豐山 柳景文·柳而得, 永陽 李宏仲, 英陽 南成仲 등과 청량산을 유람한 적이 있다. 당시 이황은 고산에 들러 금난수에게 시를 지어 주었거니와 고산 일대를 신선이 사는 ‘洞天’으로 간주하고 금난수를 선계에 사는 신선으로 표현했다.<sup>19)</sup> 고산에 대한 이황의 예찬은 李庇遠이 보낸 시에 대한 답례의 시편에도 간취된다. 고산의 절경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수려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sup>20)</sup> 「獨遊孤山」의 두 번째 시는 고산이 있는 마을을 노래한 〈日洞〉이다.

日洞佳名配月潭 日洞이란 좋은 이름 月潭과 짝되니  
官居知是謬村談 官居는 잘못된 村談인 줄 알겠다  
箇中儘有良田地 이 안에 참으로 良田이 있으니  
欲問琴孫置一庵 琴孫에게 물어 정자 하나 두고 싶네

일동은 우리말로 ‘날골’이라 부르는 동명이다. 승구에 지명으로 사용된 ‘官居’는 당시의 향음으로 표기하면 ‘那乙邑去’가 된다. 이황은 주민들이 사투리로 ‘官居’라 일컫는 것이 잘못임을 지적하면서 이곳에 집터를 구해 은거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냈다. 날골은 월명담 위에 위치한 마을로 그 명칭이 월명담과 대대적 관계를 형성한다. 원시의 소주에 따르면 날골에는 琴生과 孫生의 전장이 있었다. 결구의 琴孫은 바로 琴生으로 표기된

19) 『退溪先生文集』卷3, 「孤山見琴聞遠」 “越險投深得一天, 瓊臺瑤浦映芝田. 舊來不見今來見, 疑是親逢洞裏仙.” 이 시는 『惺齋文集』에는 「再遊孤山」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당시 퇴계의 청량산 유람에는 조카 齋, 손자 安道 등이 수행했으며, 禮安 현감 苞山 郭景靜 및 橫城 趙士敬, 鳳城 琴夾之는 약속만 하고 동행하지는 못했다.

20) 『退溪先生文集外集』卷1, 「次韻李庇遠見寄」 “但覺行吟句轉奇, 不妨驢脚傍山遲. 誰能畫出孤山境, 迎得騷人作主時. 右尋孤山遇雨韻.”

琴憲의 아들 금난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황은 한번은 고산에 들렀다가 강물이 불어나 금난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구름 낀 산을 한참동안 바라보며 아쉬워하면서 고산의 석벽에 시를 남겼다. 직접 고산의 절벽에 쓴 이 시편은 당시의 정경이 짙진하게 묘사되어 생동감이 넘칠 뿐 아니라, 제자를 아끼는 스승의 은근한 정이 시구에 넘쳐 뒷맛의 여운이 오래 지속된다.<sup>21)</sup> 이황은 사물에 바른 이름을 붙이고 이름의 뜻과 실체가 같도록 바로잡는 일을 앞장서서 실천했는데 위의 시는 존재를 표시하는 명칭에 대한 이황의 깊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사물의 본질을 재모색하는 중대한 계기나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공자의 정명사상에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황은 바른 칭호의 부여가 사회의 가치관을 바로잡는 것이고, 바른 이름으로 불리어 질 때 그것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다음 시는 「獨遊孤山」의 세 번째가 되는〈月明潭〉이다.

窈然潭洞秀而清 깊숙한 못 골이 곱고도 맑은데  
陰罍中藏木石靈陰罍와 木石靈이 그 속에 숨었네  
十日愁霖今可霽 열흘의 긴 장마가 이제 개여서  
抱珠歸臥月冥冥 구슬 안고 돌아가 어둔 못에 누웠나

월명담은 원래 龍湫로 불리어 왔다. 이황은 용추를 월명담으로 개명하고, 백운동이나 미천 보다 더욱 異境한 장소로 여겨 신성시했다.<sup>22)</sup> 월명

21) 『退溪先生文集』卷2, 「書孤山石壁」, “日洞主人琴氏子, 隔水呼問今在否. 耕夫揮手語不聞, 悵望雲山獨坐久.”

22) 『退溪先生文集外集』卷1, 「次韻李庇遠見寄五首」, “自白雲洞之上, 有長潭, 俗呼其地曰彌川, 可泛舟. 又其上月明潭, 尤爲異境云.”

담에는 예전부터 禱雨壇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고을 수령들이 돼지를 잡아 기우제를 지냈다. 기록에 따르면 월명담이 낙동강의 상류에 위치한 탓인지 경상도 내의 큰 강으로 인식되었다. 1634년에는 이틀 동안 월명담의 물줄기가 끊기는 변고가 발생했지만 위아래 물줄기는 평소처럼 흘렀다.<sup>23)</sup> 시는 전체적으로 장마 뒤에 펼쳐진 월명담 주위의 청수한 경관과 용추에 전해지는 전설을 다소 신비스런 분위기로 표현했다. 陰罍는 陰物의 짐승인 용을 지칭하며, 木石靈은 水石의 怪인 龍罔象, 木의 怪인 夔罔兩으로 산중에 사는 괴물을 이른다.<sup>24)</sup> 전구의 愁霖에는 화자의 심적 반응과 소망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는데, 장맛비가 개임으로써 일거에 해소되고 있다. 月冥冥은 못물이 장마로 불어나 깊숙하고 컴컴한 상태를 물속에 비치는 달빛을 빌려와 감각적으로 드러냈다. 여기에서 月은 직접적으로 하늘의 달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 보다 월명담에 어른거리는 달빛을 지시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결구의 주어가 마땅히 陰罍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랜 장마 끝에 지은 작품인 때문인지 비갠 뒤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는 듯 시상의 전개가 청신한 편이다. 다음은 「獨遊孤山」의 네 번째가 되는 〈寒粟潭〉을 살펴본다.

瘦馬凌兢越翠岑 어윈 말 몸 떨며 푸른 뿔 지날 제  
俯窺幽壑氣蕭森 깊은 구렁 굽어보니 기운이 싸늘하이

23) 『諛聞瑣錄』續雜錄[三] 甲戌 崇禎七年 “十二月慶監狀啓. 禮安呈, 縣前橫流大川, 乃是黃池下流, 境內清涼山下月明潭上灘近處, 深可至腰, 雖大旱不至絕流. 今月初一日自卯至巳, 初三日自卯至巳, 渴涸絕流, 人皆着履過行, 令人尋蹤, 只兩灘乾涸, 灘之上下, 水流如常, 其深依舊. 初五日又爲乾涸, 月明潭乃是洛東上流, 道內大川, 今忽如此, 此變非常.”

24) 『退溪先生文集攷證』卷1, 月明潭, “陰罍 龍以爲罍. 木石靈 水石之怪曰龍罔象, 木之怪曰夔罔兩.”

淸遊步步皆仙賞 맑은 유람 걸음걸음 곳곳이 선경이라  
 怪石長松滿碧澗 怪石과 長松이 푸른 물가 가득하네.

시를 읽어 보면 한속담 골짜기는 그윽한 분위기가 감돌아 유람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기구는 산수를 찾아 나선 은자의 모습을 그린 명산도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다. 절벽 위에서 내려다 본 한속담은 거의 해가 들지 않는 듯 깊숙하여 소름을 돋게 한다. 가파른 재를 넘는 수척한 말 모습을 형용한 凌兢과 기운의 음침함을 묘사한 蕭森은 각각 첩운어와 쌍성어로 시의 음악적 리듬성을 강화해 준다. ‘걸음걸음’을 뜻하는 ‘步步’라는 시어에는 이곳의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걸음이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작가의 절박한 심정과 심미의식이 담겨있다. 이황은 한속담의 주변 경치를 선경으로 인정하고 탄상하면서, 자연경물을 대해 말 그대로 淸遊를 즐긴다. 시각적 심상을 자극하는 怪石은 시인의 주관적 仙賞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시는 전반적으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감지될 수 있는 ‘淸’을 추구하는 보편적 심미관이 반영되어 있다. 다음은 「獨遊孤山」의 다섯 번째가 되는〈景巖〉을 살펴본다.

激水千年詎有窮 천년이라도 激水가 끝이 있으랴만  
 中流屹屹勢爭雄 중류에 우뚝서서 기세를 다투누나  
 人生蹤跡如浮梗 인생의 발자취란 浮梗 같은지라  
 立脚誰能似此中 어느 누가 이같이 굳건히 버틸까

천년 세월에도 아랑곳 없이 세찬 물결에 맞서 굳건히 버티온 景巖의 기세를 찬탄한 시다. 이황은 1564년에 청량산 유람을 약속하고 경암에

이르러 조목, 김부륜, 권경룡 등을 기다리다가 먼저 떠나면서 시를 남겼다. 그 시에 의하면 경암 일대는 솔과 바위가 맑고 그윽하며 서늘한 그늘이 맑은 못을 굽어보는 장소로 그려져 있다.<sup>25)</sup> 激水는 세차게 흐르는 낙천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屹屹은 높게 우뚝 솟은 경암의 기상을 가파른 산처럼 형용한 것이다. 이 시어에는 천년이란 세월의 영원성과 그에 맞서는 경암의 변치 않는 고독한 기상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蹤跡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쓸쓸한 정서를 반영한다. 그것은 물에 떠다니는 나무줄기로 만든 인형과 같은 浮梗에 불과한 흔들리는 존재와 다를 바가 없다. 이와 대비되는 경암의 불변성과 영원성은 나약한 인간이 경모의 대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퇴계는 시를 통해 외물에 불과한 하나의 바위에 존재를 표시하는 이름과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만물을 하나로 보는 일시동인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이황에게 있어 경암은 적어도 황하의 지주산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난세에도 절의를 지키는 의연한 인물의 출현을 갈구하는 정의로운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獨遊孤山」의 여섯 번째가 되는 〈彌川長潭〉이란 작품이다.

長憶童時釣此間 어린 시절 여기서 고기를 낚았는데  
卅年風月負塵寰 삼십년 塵寰에 風月을 저버렸네.  
我來識得溪山面 溪山の 옛 모습을 나야 알아보지마는  
未必溪山識老顏 溪山이야 내 얼굴 알아 볼 수 있을까.

25) 『退溪先生文集』卷3, 「憩景巖潭上, 待士敬惇敘施伯不至, 先行」, “松石清幽號景巖, 涼陰  
匿匠俯澄潭. 後來若識先來意, 妙處同歸豈二三.”

백운동 바로 위에 소재한 彌川의 長潭을 노래한 시다. 미천은 속칭 ‘메내’, ‘맹개’라 부르며, 한자로는 綿蠻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수심이 배를 띄울 만큼 깊고 강폭도 상당히 넓으며 길게 펼쳐져 있으므로 장담이라 부른다. 이황은 이곳에서 그 옛날 낚시를 즐기던 소년시절을 회상하면서 벼슬살이 하느라 삼십년 세월을 부대끼며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다. 풍진으로 흠날리는 듯한 어지러운 세상을 뜻하는 塵寰은 당대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과 심경이 어떠한 가를 대변해 준다. 그에게 환로는 그야말로 풍진세상을 뜻하는 진환으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굴레였던 것이다. 卅年이란 표현을 통해 이 시의 작성 시기가 대략 60대 초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의 후반부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溪山에 대한 그의 애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미천은 도산에서 강을 따라 청량산을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코스이다. 미천에 이르면 청량산의 면모가 비로소 눈앞에 생생한 그림처럼 전개된다. 이황은 이런 미천을 건너면서 말 안장 위에서 그의 표현대로 하면 ‘淸高’한 청량산을 바라보고 그림 같은 시를 남겼다.<sup>26)</sup> 그리고 선달 어느 눈내린 새벽에는 李庇遠이 보낸 시에 차운하면서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미천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내었다. 미천과 월명담을 인간 세계에서 만나 보기 어려운 절경이라 단정하고 물외의 세계를 찾아 혼자 노니는 李庇遠을 부러워했던 것이다.<sup>27)</sup> 다음에 소개하는 작품은 「獨遊孤山」의 일곱 번째가

26) 『退溪先生外集』卷1, 「渡彌川望山」, “曲折屢渡淸淸灘, 突兀始見高高山. 淸淸高高隱復見, 無窮變態供吟鞍.”

27) 『退溪先生外集』卷1, 「次韻李庇遠見寄五首」, “長憶彌川可鑑心, 月明潭洞更幽深. 人間絕境應難得, 物外唯君獨去尋. 手把犁鋤爲活計, 園挑參朮養靈襟. 鏡中白髮催歸興, 臘雪寒燈到曉吟.”

되는〈白雲洞〉이다.

靑山綠水已超氛 靑山 녹수 이미 세상먼지 벗었는데  
 更著中間白白雲 회고 흰 구름을 중간에 매두다니  
 爲洗鄉音還本色 鄉音을 씻어내어 본모습 되찾으니  
 地靈應許我知君 地靈이 나를 일러 자기를 안다하리

靑山과 綠水가 어우러진 白雲洞의 담박한 풍광을 그리면서 잘못 전해지는 지명을 바로잡은 것에 대한 소감을 형상화하였다. 의연한 靑山과 유동성을 지향하는 綠水, 그리고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白雲이 묘한 조화를 이루어 비껴 뒤에 산수를 그린 한 폭의 해맑은 수채화를 연상케 한다. 청색, 녹색, 백색의 대비적 색채 감각은 백운동의 경관을 그림 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공간의 한 장면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시인의 의식세계를 선명하게 인식케 하는 회화적 마력을 가지고 있다. 超氛은 세속을 초월한 경계로 백운동이 속세하는 거리가 먼 탈속의 공간임을 가리킨다. 白자를 중첩으로 사용하여 백운의 고결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지명 유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퇴계는 「日洞」을 읊은 시에서도 위의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명의 잘못을 바로잡은 일을 언급했다. 퇴계의 이러한 지명 바로 세우기는 바로 공자의 정명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니와 이름과 실질이 일치되기를 지향하는 유학자의 의식세계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는 이름이란 것이 실상보다 부풀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으로 쉽사리 판단하지 말라는 역설적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름을 보고서 그 이름을 지은 이유를 떠올리고 마음을 다잡는 顧名思義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사물의 이름과 그 의미를

떠올리며 그 이름과 실상의 부합 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이를 경계로 삼아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유가의 도덕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결국에서는 地靈도 지명을 바로 잡아 준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며 성품의 천진성에서 비롯된 자긍심과 자부감을 표현했다. 대지의 영적 존재를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의인화 수법을 사용한 점이 돋보인다. 위의 시는 현실의 구속으로 벗어나 조화 속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이황의 결백 추구의 심리적 지향과 유학자로서 실상과 다른 이름의 허구를 비판하면서 이름과 실상이 서로 부합해야 한다는 도저한 정명의식이 반영된 시라고 할 수 있다. 「獨遊孤山」의 여덟 번째가 되는 〈丹砂壁〉을 살펴보자.

下有龍淵上虎巖 아래엔 龍淵, 위에는 虎巖  
藏砂千仞玉爲函 丹砂 묻힌 천길 절벽 玉函이 되었네  
故應此境人多壽 그래서 이곳 주민 오래 살지만  
病我何須斷翠巖 병든 내가 어찌 꼭 翠巖을 팔까

단사벽은 말 그대로 온통 붉은 빛깔을 띠며 수직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른바 ‘七臺三曲’의 하나인 단사곡에 펼쳐진 보기 드문 협곡성의 암벽이다. 七臺는 〈招隱臺〉·〈月瀾臺〉·〈考槃臺〉·〈凝思臺〉·〈朗詠臺〉·〈御風臺〉·〈凌雲臺〉를 일컫고 三曲은 〈石潭曲〉·〈川沙曲〉·〈丹砂曲〉을 일컫는데, 모두 이황이 명명하고 이에 대해 시도 지었다. 28) 『선성지』에 따르면 이황은 단사협에서 ‘八詠’ 시도 남겼는데, 이 ‘八詠’ 시가 ‘七

28) 『良齋先生文集』卷6, 「溪山記善錄下」, “是昏明燈, 作七臺詩吟詠, 移時數更而還寢, 曉又明燈而看晦菴書, 乃念七日也.”

臺三曲' 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 지는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사의 경관 중에서 갈선대가 가장 빼어나고 나머지 경치도 모두 면면이 기이한 편이다. 이황은 류성룡이 농운정사에서 공부할 때 단사협을 유람하라고 특별히 명할 만큼 단사의 풍광을 아꼈다.<sup>29)</sup> 승구의 '千仞'이란 시어는 단사벽의 높이를 실상보다 강조한 표현으로서, 기구의 '龍淵' 및 '虎巖'과 서로 어우러져 소의 깊이뿐만 아니라 지세의 험난함도 연상케 하는 다중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황은 丹沙라는 지명을 통해 단약을 연상하고, 신병 타이기도 했겠지만 장생을 기원하는 신선술에 관심을 표명했다.<sup>30)</sup> 이황은 고산 유람 이후 두 곳의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하고 시를 남긴 적이 있거니와 바로 단사곡과 천사곡 사이에 위치한 고세대와 갈선대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 두 대의 이름이 도가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갈선대는 『포박자』와 『신선전』을 저술한 도가의 갈홍을 신선에 빗대어 명명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황은 단약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록된 진결에 대해 자신의 지식이 무지함에 대해 탄식하기도 했지만, 평소 병약했던 그는 자연히 양생술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참동계』·『포박자』 등의 도가류의 저술도 섭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위의 승구에서 金液이나 還丹 같은 선약을 보관하는 '玉函'을 시어로 채택한 것도 신선술에 상당한 이해가 있었음을 뒷받침 한다. 그는 전구에서 도가의 도사들이 복용하는 단약을 연상

29) 柳欽陸, 『克庵文集』, 『遊清涼山錄』, “蓋丹沙者, 昔我西厓先祖受業於隴雲也, 老先生特領往賞丹沙峽者, 卽其地也. (중략) 疊屏開面, 寒流如鏡, 此乃丹沙峽, 而八景中葛仙臺最秀, 餘景面面皆奇.”

30) 『退溪先生文集』卷1, 『戲作七臺三曲詩, 丹砂曲』, “青壁欲生雲, 綠水如入畫. 人居朱陳村, 花發桃源界. 安知萬斛砂, 中藏天秘戒. 嗟我昧眞訣, 悵望聊興喟.”

하고 이것이 이 마을의 주민들이 장수하는 비결이라 단정 짓는다. 그러나 그 자신은 비록 단약을 복용해서 장수할 수 있다고 해도 푸른 산을 파헤쳐 가면서 단사를 찾아 단약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것은 도가의 비합리적 신선술에 대한 유가적 부정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산수를 아끼는 퇴계의 자연 애호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獨遊孤山」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川沙村〉이란 작품이다.

幽篁川沙李丈居 깊고 먼 천사촌에 이씨 노인 사는데  
 平田禾熟好林墟 넓은 들에 벼 익으니 숲 속 마을 좋구나  
 卜隣我亦專西壑 나도 역시 이웃 삼아 서쪽 골짜기 차지하고  
 茅屋中藏萬卷書 띠 이영집 가운데 만권 책을 지녔다오

속칭 내살미라 하는 천사촌을 읊은 것으로 전원생활의 전형적인 모습과 거처를 마련한 것에 대한 뿌듯한 기쁨을 피력한 시다.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을 그윽하고 심원하다는 幽篁으로 표현하였다. 이곳에는 이현보의 아우이자 이덕홍의 조부되는 李賢佑가 살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李丈으로 호칭하였다. 퇴계는 학문을 연마하고 주변 자연을 즐기며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지산와사에서 시작해 양진암, 죽동을 거쳐 계상에 한서암과 계상서당을 짓고 도산서당을 세우기까지 완벽한 터를 찾기 위해 다섯 차례나 옮겨 다녔다. 맨 처음 지산와사를 마련한 것은 1531년 30살, 도산서당을 완성한 것은 1561년 그의 나이 61살 때다. 이황이 그토록 절박하게 좋은 터를 구해 집을 짓고자 한 것은 주자가 무이정사에서 꿈꿨던 것처럼 제자들과 만나 학문을 꽃피우기 위한 절실함 때문일 것이다. 위의 專西壑의

구절로 보아 이때 그는 내살미 건너편의 紫霞峯 아래 霞明洞에 초가를 마련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그의 나이는 48세 무렵이다. 이황이 64세 때 청량산 가는 도중에 지은 시에는 천사곡의 모습을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했다.<sup>31)</sup> 66세 되던 해에는 월란암에 머물러 이덕홍·금제순 등 문인들과 강학하는 여가에 원근의 경관을 바라보며 형승의 기절함에 대해 감탄하고 시를 지었다. 이른바 ‘칠대삼곡’ 시이다. 그 중 「川沙曲」시에서 자하동에 자리잡은 이황 자신의 집을 언급했는데<sup>32)</sup> 전구의 내용과 사실성이 부합된다. 위의 시는 산림에 은거한 여유와 전원의 한적한 정서를 노래하는 한편, 거처를 마련한 기쁨과 이를 배경으로 독서와 학문에 침잠하는 모습을 자족적으로 표출했다.

#### IV. 이야순의 「孤山九曲」 분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계 사상과 퇴계 시의 현장을 거론한다면 고산 일대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황은 ‘遊山은 독서와 같다’고 했으니, 청량산으로 가는 고산 노정은 심성을 일깨우는 사색의 공간으로써 퇴계의 철학이 완성된 공간적 의미를 함축한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터이다. ‘고산구곡’은 바로 고산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명명한 구곡이다.

31) 『退溪先生文集』卷3, 「到川沙, 待李大成未至」, “煙巒簇簇水溶溶, 曙色初分日欲紅. 溪上待君君不至, 舉鞭先入畫圖中.”

32) 『退溪先生文集』卷1, 「戲作七臺三曲詩, 川沙曲」, “川流轉山來, 玉虹抱村斜. 岸上藹綠疇, 林邊鋪白沙. 石梁堪釣遊, 墟谷可經過. 西望紫霞塢, 亦有幽人家.”

백운동에서 미천, 경암, 고산을 거쳐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고산구곡의 지역적 범위는 도산구곡의 7~9곡에 해당한다. 두루마리에 그려진 산수화를 펼쳐 놓은 듯한 명미한 경관은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퇴계가 걸던 그 정취를 지닌 채 예스런 향기를 뿜어낸다.

본장에서 거론하려는 이아순의 「孤山九曲」시는 현재 『廣瀨遺稿』와 『孤山題詠』이란 자료에 실려 전하는데 모두 유일본에 가까운 필사본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이아순이 남긴 시문은 『廣瀨先生文集』으로 정리되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나 거기에는 「孤山九曲」이 실려 있지 않다. 문집을 편찬 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을 터인데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현전하는 「孤山九曲」은 필사의 착오로 인해 서너 곳에 글자의 異同이 간취되는데 본고에서는 『廣瀨遺稿』를 대본으로 삼고 『孤山題詠』을 참조하였다. 시의 형식은 10수 모두 7언 절구를 사용했고, 구성은 서시, 〈白雲洞曲〉, 〈景巖曲〉, 〈月明潭曲〉, 〈日洞曲〉, 〈孤山亭曲〉, 〈清溪曲〉, 〈博石曲〉, 〈清涼曲〉, 〈後谷曲〉 등 구비의 순서대로 전개된다. 먼저 서시를 살펴본다.

仙源扣柵問坤靈 仙源이라 노 두드려 坤靈에게 묻노니  
沿洛亭臺幾占清 낙천 연안의 亭臺는 얼마나 맑은가  
絕壁千尋應第一 천 길의 고산 절벽 마땅히 제일가니  
棹歌今日可無聲 뱃노래가 어찌 오늘 없을 수 있으랴

仙源은 신선이 살고 있는 곳으로 풍광이 뛰어난 경승지를 비유한다. 진의 도연명이 묘사한 이상향인 도화원에 비유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퇴계의 「琴聞遠自孤山寄詩一絶」<sup>33)</sup>의 쇠구를 그대로 차용

한 것으로, 고산이 바로 선계와 다를 바 없음을 표명한 것이다. 땅의 정령과 문답하는 형식을 취하여 고산구곡이 영묘하고 수려하다는 작시자의 의사를 명확히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문의 작시적 수법은 수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분산을 집중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노로 뱃전을 두드리는 것을 扣柵라 하는데 이 시가 기본적으로 뱃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임을 의미한다. 시인의 심리적 상태는 음악을 연주하는 듯 매우 흥취에 젖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亭臺는 낙동강 상류인 낙천 주변에 세워진 누대 정사를 통칭해서 말한 것으로 고산구곡의 경내에 속한 누대정사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낙동강 상류인 낙천 물줄기 연안에는 경치가 아름답고 안온한 곳이면 으레 정대가 세워져서 지금도 셀 수 없을 만큼 전해지고 있다. 고산 일대에 한정해서 거론해도 일동정사를 비롯하여 소요대, 선학대, 수운대, 조대, 망선대 등이 형성되었다. 전구의 ‘絶壁千尋’은 시류를 거부하고 명리에 초연한 고산 주인 금난수의 고매한 인품과 기상을 반영한 표현이다. 산수 은둔의 동경과 지향을 견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황의 「寄問孤山琴聞遠」<sup>34)</sup>에서 차용한 표현으로 고산구곡 시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키워드로 기능한다. 결구의 棹歌는 기구의 扣柵와 더불어 구곡시가 뱃놀이에서 유래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시의 성격 뿐 만 아니라 구곡시가 제작 배경을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구곡시가 성격이 탁홍우의적 造道詩가 아니라 인물기흥의 산수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33) 『退溪先生續集』卷2, 「琴聞遠自孤山寄詩一絶. 言小舟已具, 窮搜景致可樂云. 次韻卻寄, “春非孤我我孤春, 縱得歸山亦絆身. 問道仙源舟已辦, 欲將逃世問真人.”

34) 『退溪先生續集』卷2, 「寄問孤山琴聞遠」, “遙憐絶壁千尋下, 茅屋臨流讀古書. 靜養工夫能會未, 書中眞味近何如.”

있으며 棹歌라는 뱃놀이 노래의 특유한 흥취를 노래한 희작적 경향의 유흥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幾占淸’은 『孤山題詠』에 어순이 바뀌어 ‘點幾淸’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 이해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구곡시에서 서시가 구곡에 대한 총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시는 고산구곡 시의 성격과 작가의 작시 의도 등이 비교적 명징하게 표현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제1곡으로 설정된 白雲洞曲을 노래한 시다.

一曲雲谷白匪船 일곡은 구름 골, 배를 감싸고  
 名還本色耀山川 본래 이름 되찾으니 산천이 빛난다  
 幽宮且在超氛境 幽宮이 또한 超氛의 경계에 있어  
 碣面香風細裊烟 비석에 香風불고 이내가 細裊하다

제1곡은 白雲洞曲으로 선성 14곡의 제6곡으로 선정된 곳이다. 속칭 ‘배오지’라 부르는데 백운산 자락을 배경으로 부챗살이 펼쳐진 형상을 이루고 있다. 초입에는 단사벽이라 부르는 붉은 빛을 띤 바위 절벽이 천연의 병풍을 이루고 있다. ‘白匪’의 白은 白雲의 생략으로 보인다. 다만 『孤山題詠』에는 백 겁이란 뜻의 ‘百匪’으로 기록되어 구름이 자욱하게 배를 뒤덮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雲谷’은 『孤山題詠』에는 ‘雲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雲容’은 오기로 보인다. 승구의 名還本色은 퇴계의 「白雲洞」<sup>35)</sup> 첫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이름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른바 正名意識이 반영되어 있다. 예전부터 鄉音으로 ‘船呼知’라 불렀

35) 『退溪先生文集』卷1, 「獨遊孤山」白雲洞, “青山綠水已超氛, 更着中藏白雲, 爲洗鄉音還本色, 地靈應許我知君.”

는데 퇴계는 시를 지어 와전된 것임을 밝히고 白雲池로 개명할 것을 주문했었다. 幽宮은 백운산에 있는 惺齋 琴蘭秀의 묘소를, 礪面은 그 묘소의 비석을 가리킨다. 이야순이 제1곡에서 특별히 幽宮과 礪面을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의 묘소가 이곳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보다는 고산구곡의 관념적 경영주체, 즉 시공을 초월한 주인으로서 금난수라는 인물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산구곡에서 금난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이해된다. 超氛境은 혼탁한 세속을 초월한 경계를 가리키는 바, 백운동곡이 바로 속세를 벗어난 선경의 공간이자 고산구곡의 초입으로서의 세상과는 동떨어진 단절적 공간인 것을 의미한다. 細裊는 향기로운 바람에 실려 하늘하늘 가늘게 피어나는 이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구속을 벗어난 자유로운 감성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지된 대상에 머물지 않는 시인의 탁월한 관찰력과 섬세한 표현력은 결구의 동적 변환을 통해 시의 전반부에 생동감을 불어 넣고 있다. 다음 시는 제2곡 景巖曲을 노래한 작품이다.

二曲巖如景仰峯 이곡이라 바위는 景仰峯 같아  
 巖然立脚大人容 굳게 선 모습 대인의 자태로다  
 中流學得盤陀石 중류의 반타석을 배운 것이리  
 相距纓潭隔幾重 탁영담과 얼마나 떨어져 있나?

제2곡은 景巖曲으로 퇴계 오솔길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공간으로 유장한 물길 따라 산세가 수려하기 그지없다. 巖如是 바위가 힘하게 치솟은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巖然과 같은 의미로 높은 기상을 비유한다. 景仰

은 말 그대로 높은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고 큰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하는 큰 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지닌다. 격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솟은 경암의 결연한 정신은 ‘凝然’으로 압축되어 묘사되었다. 이어지는 ‘立脚’은 전후 문맥으로 보아 퇴계의 「景巖」<sup>36)</sup> 시의 뜻을 차용했다. 전구의 中流와 호응되어 황하 한가운데 곳곳하게 서있는 지주처럼 난세나 역경 속에서도 의연히 절개를 지키는 선비를 비유한다. 盤陀石은 도산구곡의 제5곡으로 설정된 탁영담 가운데 있는 넓고 편편한 바위 이름이다. 큰비가 내려 물이 불면 소용돌이와 함께 물 밑으로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이 황은 탁류에는 몸을 숨겼다가 맑아지면 다시 나타나는 반타석에서 바람직한 선비의 처신을 연상하고, 세찬 물결에 부딪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타석의 깨끗한 미덕을 찬미했다.<sup>37)</sup> 반타석이 잠겨있는 濯纓潭은 도산서당 앞에 형성된 못으로, 이황이 굴원의 어부사에서 이름을 취하여 명명했다. 즉 도덕적 가치를 충분히 실천하는 인간이라면 경암처럼 시류에 편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곳곳이 지킬 바를 지켜야 함을 주문한 것이다. 경암과 반타석은 모두 선비의 처신을 상징하는 매개물이다. 위의 시는 자연물에서 천리의 유행을 깨닫고 시세에 따라 行藏과 進退를 합리적으로 하는 대인군자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다음 시는 제3곡 月明潭曲을 노래한 작품이다.

36) 『退溪先生文集』卷1, 「獨遊孤山」景巖, “激水千年詎有窮, 中藏屹屹勢爭雄. 人生踪跡如浮梗, 立脚誰能似此中.”

37) 『退溪先生文集』卷3, 「陶山雜詠」盤陀石, “黃濁滔滔便隱形, 安流帖帖始分明. 可憐如許奔衝裏, 千古盤陀不轉傾.”

三曲潭虛月一船 삼곡이라 빈 쏘에 달과 배 한 척  
 如何淵陸換多年 어찌타 많은 세월 淵陸이 되었나  
 藏靈陰畧今無處 영기 지닌 陰畧는 이제 간 곳 없어  
 禱雨壇空更可憐 쓸쓸한 禱雨壇만 더욱 가련쿠나

제3곡은 달이 못에 비치어 아름다운 月明潭曲이다. 쏘의 물이 줄어들어 공허한 느낌을 주는 것을 潭虛라는 조금은 낯선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月一船은 명칭에 걸맞지 않은 월명담의 삭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淵陸은 깊은 못이 물으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월의 무상함을 연상케 한다. 「고산구곡」에서 뿐만 아니라 구곡시가의 제3곡은 대체로 세상의 엄청난 변화를 통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피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서는 『무이도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전구의 陰畧는 영험을 지닌 용 같은 짐승을 이른다. 실제로 가뭄이 심하면 예안 현령이 월명담에서 기우제를 드렸고 응험이 있었다. 그런데 광희가 이 시를 지은 당시에는 수량이나 지형 등의 변화로 인해 월명담이 이름에 합당한 쏘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월명담에 기우제의 대상인 음휴가 없다는 것은 이곳이 이미 도우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시의 후반부는 퇴계의 「月明潭」<sup>38)</sup> 구절을 차용하여 현재적 공간의 공허한 분위기를 직설적으로 표출했는데 월명담 주변의 상전벽해와도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화자의 애틋한 감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다음 시는 제4곡 日洞曲을 노래한 작품이다.

38) 『退溪先生文集』卷1, 「獨遊孤山」月明潭, “窈然潭洞秀而清, 陰畧中藏木石靈. 十日愁霖今可霽, 抱珠歸臥月冥冥.”

四曲朝陽欲透巖 사곡이라 朝陽이 바위를 뚫을 듯  
 瓊花瑤草更氤氳 구슬같은 화초가 더욱 氤氳하다  
 如今敢怠餘輝玩 지금 감히 게으를까 餘輝를 완상함을  
 請看佳名配月潭 佳名이 월담과 짝이 됨을 보시게나

제4곡은 날골이라 부르는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日洞曲이다.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햇빛이 내리비치는 양지바른 곳으로 거주공간으로써 적합한 곳이다. 月明潭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명칭도 서로 대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속칭 ‘那乙邑去’라 부르는데 이것은 ‘官居’, ‘邑居’라는 말이 와전된 것으로 이황에 의해 일동으로 개명이 되었다. 이황 당시에는 琴씨와 孫씨가 이곳에 전장을 두고 있었다. 朝陽은 솟아오르는 아침 해를 가리킨다. 바위를 뚫을 것 같다는 표현은 이곳이 매우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양기가 충만한 것을 이른다. 시의 후반부는 이황의 「次聞遠孤山亭韻」과 「日洞」<sup>39)</sup>의 詩구를 차용한 것으로 이황의 지난 자취를 계승하려는 의지와 와전된 지명을 바로 잡은 사실을 서술하였다. 이황은 일동과 월명담의 경치를 아껴서 때때로 찾아가 餘輝를 완상하곤 했는데 餘輝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듯하다. 조금 남아 있는 저녁 햇빛을 뜻하는 경우와 옛사람이 남긴 빛나는 자취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퇴계 시의 원뜻은 전자를 가리키지만, 광뢰시에서는 이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는 제5곡 孤山亭曲을 노래한 작품이다.

39) 『惺齋先生文集』卷4, 附錄, 「次聞遠孤山亭韻」, “身非出世未須歸, 占斷烟霞豈有違. 境絕更饒田壟關, 山孤惟稱鶴栖飛. 四時來往雙芒屨, 萬事榮枯一薜衣. 日月佳名吾亦愛, 尋君時復玩餘輝. 多君來訪索居春, 把玩風光尙二句. 得與溪山眞作主, 何須此外更隨人.” 『退溪先生文集』卷1, 「獨遊孤山」日洞, “日洞佳名配月潭, 官居知是謬村談. 箇中儘有良田地, 欲問琴孫置一庵.”

五曲天壺奇且深 오곡은 天壺라 기이하고 깊숙한데  
 山亭面面盡瓊林 山亭은 면면이 온통 瓊林일세  
 欲攀孤絕誰能易 누가 능히 쉽사리 孤絶을 오르랴  
 始認幽人壁立心 유인의 壁立心을 비로소 알겠다

제5곡은 고산정이 위치한 孤山亭曲으로 고산구곡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이곳에 처음으로 별서를 마련한 琴蘭秀(1530~1604)는 스승 이황으로부터 영예롭게도 ‘고산주인’이란 칭호를 받았다. 그는 처남 조목의 권유로 20대에 溪門에 들어간 초기 제자로서 34세 되던 1563년에 마침내 고산 골짜기에 정사를 지어 독서를 하며 자연을 벗 삼았다.<sup>40)</sup> 天壺는 무이구곡의 제7곡에 위치한 鼓樓巖 옆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봉만이 둘러싸서 합쳐진 가운데 道院이 있고 石泉이 극히 淸明한 곳이다.<sup>41)</sup> 고산정 일대의 기암과 심곡이 천호암의 환경과 흡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해석상에 있어서는 天壺를 壺天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평측과 운율을 고려해서 시인이 의도적으로 글자를 바꾸어 놓은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壺天은 한대의 선인인 호공이 향아리 속의 선계에 살았다는 壺中天의 뜻으로, 고산이 신선이 사는 선계와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고산곡의 주변 경관이 무이구곡과 다를 바 없는 별천지나 선경으로 이해한 것이 된다. 청량산으로 독서하러 가는 금

40) 『惺齋先生文集』年譜. 1563년(선생 34세) 조에 보면, “가을에 日洞精舍를 지었다. 이것이 곧 고산정이니 푸른 절벽을 끼고 깊은 못을 굽어보는데, 경치가 빼어나고 그윽하여 宣城의 명승지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금난수는 25세 되던 1555년에는 부포에 惺齋라는 정자를 짓고 학문을 연마했다.

41) 『退溪先生文集攷證』卷1, 「閱讀武夷志云云」, “天壺巖在七曲鼓樓巖之側, 峯巒環合, 中有道院, 石泉極淸明.”

난수를 보내면서 지어 준 퇴계의 ‘好向壺天藏世界’라는 시구에 견주어보면 후자의 풀이가 더욱 타당성을 지닌다. 시의 후반부는 퇴계의 「孤山」시의 의상을 그대로 빌려서 금난수의 고고한 기상과 시속과 어울리지 않는 그의 탈속적 성격을 빗대어 언급하였다.<sup>42)</sup> 전구에 사용된 ‘孤絶’은 바로 이항의 「獨遊孤山」의 첫 수로 수록된(孤山)의 결구에서 차용한 시어다. ‘고절’이란 표현은 고산의 주인인 금난수의 개성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幽人은 스승을 닮아 산야의 기질을 지닌 금난수를 지칭한다. 그의 기상은 퇴계가 인정한 바와 같이 깎아 세운 듯한 절벽처럼 시류에 휩싸이지 않는 고고한 일면을 지니고 있었다. 壁立心은 이러한 금난수의 늠름한 기백과 기세를 비유한 것이다. 다음 시는 제6곡 淸溪曲을 노래한 작품이다.

六曲巖溪碧作灣 육곡은 바위 냇물, 푸른 구비 이루고  
 研朱堪置一雲關 구름 관문에 研朱를 능히 둘만 하네  
 望仙臺是相隣處 여기는 망선대가 이웃한 곳인지라  
 追想藍衣道士閑 남의 도사의 閑情을 추상한다네

6곡은 푸른 물굽이가 인상적인 淸溪曲으로 고산구곡 가운데 가장 도가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인근에 위치한 망선대는 청계곡이 바로 신선이 노니는 선경임을 시사한다. 研朱는 주묵을 간다는 뜻으로 당나라 때 신선을 매우 좋아했던 高駢의 「步虛詞」에 나오는 표현이다.<sup>43)</sup> 운무

42) 『退溪先生文集』卷1, 「獨遊孤山」, 孤山 “何年神斧破堅頑, 壁立千尋跨玉灣. 不有幽人來作主, 孤山孤絶更誰攀.”

43) 『古文眞寶』卷4, 「步虛詞」, “青溪道士人不識, 上天下天鶴一隻. 洞門深鎖碧窓寒, 滴露研朱點周易.”

로 뒤덮인 雲關은 이곳이 선경이 펼쳐진 깊숙한 산골로서, 속인이 범접하기 어려운 장소임을 시사한다. 신선이 사는 산, 즉 청량산을 조망하기 위해 구축한 望仙臺는 고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이곳에 오르면 청량산 옥육봉이 좌우에서 감싸 안고, 낙강 한줄기가 고산의 자락에 실처럼 흘러든다.<sup>44)</sup> 금서술의 「고산잡영」에도 망선대를 노래한 시가 들어있다.<sup>45)</sup> 이황의 「선학대」시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학대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고증이 요청된다. 「선학대」시는 『퇴계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고 『성재문집』의 부록에 수록되어 전한다.<sup>46)</sup> 藍衣는 도사들이 입는 쪽빛의 옷으로 도사와 연용되어 이곳이 세속을 벗어난 공간인 것을 한층 강렬하게 전한다. 이황이 戲作으로 지은 시에 출현하는 ‘藍衣一道士’는 퇴계 자신을 자칭한 것인데 여기에서 화자는 청계라는 지명의 유사성을 들어 그 시상을 빌려 왔다.<sup>47)</sup> 청계의 위치에 대해서는 『오가산지』에 기록이 전한다. 이황이 1562년 3월에 도산을 나와 배를 타고 청계에 닿아서 시냇가에 대를 쌓고 ‘청계대’라 이름했다. 청계는 聲峴 어귀에 있으며, 성현은 도산의 서쪽 간석대 後峴에 위치한다.<sup>48)</sup> 전구의 ‘相隣處’는 『孤山題詠』에 ‘相隣處’로 되어 있는데 『孤山題詠』의 내용이 필사과정에

44) 『霞溪先生文集』卷7, 「遊孤山亭記」

45) 『素無軒文集』卷1, 「孤山雜詠」望仙臺 “屈宅靈眞六六開, 朝看霞氣滿江來. 浮生十分仙緣重, 獨檣陰邊爲遲回” 「孤山雜詠」은 7언 절구 13수와 5언 절구 11수, 모두 24수로 구성되었으며 짝막한 시서가 붙어 있다.

46) 『惺齋先生文集』卷4, 附錄, 「孤山亭題詠」 “晚日橫槎截碧流, 瑤臺秋色洗清愁. 仙禽本屬孤山譜, 好替訛名作勝遊.”

47) 『退溪先生續集』卷2 「古里店下得泉石佳處, 名曰青溪. 戲題」 “巨壁入青天, 寒流走翠石. 綠蘿擁成帷, 蒼苔踏無迹. 藍衣一道士, 偶來便終夕. 笑寫青溪詩, 還騎鶴一隻.”

48) 『吾家山志』山川臺巖集解第三條 “清溪在聲峴洞口, 年譜壬戌三月, 先生出陶山, 乘舟抵青溪, 臨溪築臺, 名曰清溪臺. 聲峴在陶山西澗石臺後峴.”

서 오류가 난 것이다. '藍衣道士閑'은 공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나 청계라는 공간을 찾아 여유롭게 노닐던 퇴계의 서정적 한정을 단적으로 지적한다. 다음 시는 제7곡 博石曲을 노래한 작품이다.

七曲瓊林俯玉灘 칠곡이라 瓊林이 옥 여울을 굽어보고  
 如甃盤石逐人看 모전 같은 반석이 보는 사람을 맞는다  
 停歌爲問高低月 노래 멈추고 高低月에 묻노니  
 誰關雲窓一畝寒 서른 평 차가운 구름 창을 누가 여는가?

제7곡은 博石曲으로 청량산에 들어가는 동구에 위치한다. 博石은 우리 말로 나분들, 한자로는 羅浮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야순은 금원례에게 편지를 보내 박석이란 지명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sup>49)</sup> 瓊林과 玉灘은 이곳이 산수 경관의 미적 요소를 구비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고, 如甃은 盤石의 구체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은유성이 가미된 촉각적 표현이다. 너럭바위를 뜻하는 반석은 일반적으로 유람 동행인이 쉬면서 완상하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高低는 달이 떠 있는 위치와 움직임을 드러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작자가 이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강물에 비친 달을 동

49) 筆寫本 『廣瀨先生文集』 「又寄元禮」 詩序. “博石이란 洞名은 『퇴계집』에 실려 있어서 상고할 수가 있다. 이는 예전부터 불리던 명칭으로 어찌 마을 앞에 반석 하나로 인해 그렇게 말한 것이겠는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羅分坪[나분들]이라 부르는 것은 소리가 비슷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그대의 시에서 이를 답습하여 ‘羅浮’라고 불러 더욱 더 와전이 되고, 이에 형세가 그렇게 정해진 것 같으나 이는 아무래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다시 읍시 한수를 지어 그 잘못을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 예전 ‘선호지’라 부르던 것을 퇴계는 ‘백운’이라 개명하면서 ‘사투리를 한번 씻어 본래 이름을 되돌렸네.’라는 시를 남겼다. 이제 ‘박석’이란 본래의 참된 면모를 찾는 것이 어찌 온당하지 않은 일인가?”

시에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작자는 잠시 노래를 멈추고 구름장을 헤치고 나온 달에게 조물주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시간의 추이와 달의 동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시어 구사, 그리고 다소 모호한 표현은 독자에게 시의 깊이를 더해주고 현장의 감흥을 전달해 준다. 雲窓은 운무가 감도는 거실을 일컫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서른 평 남짓한 一畝의 차가운 구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이랑의 면적을 뜻하는 一畝가 雲窓을 수식하는지 博石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호한 점이 없지 않지만 작자가 의도적으로 달에게 묻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구름을 수식하는 것이 합리성을 담보한다. 다음 시는 제8곡 淸涼曲을 노래한 작품이다.

八曲仙巒十二開 팔곡은 仙巒이라 열두 봉우리 열려  
眞源於此寓沿洄 참된 근원 이곳이라 沿洄를 부치네  
讀書人說遊山似 독서가 유산 같다고 사람들 말하는데  
好向壺天幾揭來 몹시도 壺天 향해 얼마나 갔던가

제8 곡은 淸涼曲으로 청량산의 외면과 상징을 설명하고 퇴계의 시를 인용하여 청량산 유산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仙巒十二'는 한마디로 청량산의 본질을 규정하는 시적 용어라 할만하다. 청량산은 연꽃 같은 열두 봉우리가 세월이 어루만진 기품 있고 청아한 산이다. 퇴계는 일찍이 「청량산가」를 지어 무릉도원에 빗대어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고 또한 오가산이라 기록할 정도로 강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 퇴계에 대한 숭모는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청량산이 종교적 성지나 다름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眞源은 源頭나 本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로 이 시에서

는 이곳 청량산이 호한한 퇴계의 발원지임을 비유한다. 沿澗는 물을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으로 수원을 찾아 배회하는 것을 이른다. 작자는 청량산을 퇴계의 학문적 연원지로 인식하고 그 근원을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황은 讀書가 遊山과 같다고 했다.<sup>50)</sup> 독서의 방법이나 태도는 산을 오르는 자세와 통하는 바가 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아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학문도 부단한 정진을 통해서 대성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구의 壺天은 제5곡 〈孤山亭曲〉의 기구에 시어로 사용된 ‘天壺’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壺中天의 의미로 이곳 청량산이야말로 신선이 사는 별천지임을 나타낸다. ‘好向壺天’은 청량산에 공부하러 가는 금난수에게 보내준 퇴계의 시에서 유래하는 바, 이황은 공부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려는 금난수의 산림 처사적 면모를 기특하게 여겼다. 그래서 고인이 된 金澤卿과 南敬仲을 그리워하면서 금난수를 면려하는 내용을 시속에 담기도 했다.<sup>51)</sup> 시의 후반부는 퇴계의 시어와 시상을 그대로 차용했는데 퇴계에 대한 시인의 존모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다음 시는 제9곡 後谷曲을 노래한 작품이다.

九曲桃源勢杳然 九곡은 도원이라 형세가 아득해  
水橋飛瀑似奔川 얼음 다리, 飛瀑이 奔川과 같구나  
高尋壯觀當時願 장대한 경관을 찾음이 당시의 바램

50) 『退溪先生文集』卷3, 「讀書如遊山」, “讀書人說遊山似, 今見遊山似讀書. 工力盡時元自下, 淺深得處摠由渠. 坐看雲起因知妙, 行到源頭始覺初. 絕頂高尋勉公等, 老衰中輟愧深余.”

51) 『退溪先生續集』卷2, 「送琴聞遠讀書清涼山」, “故人今作隆泉人, 送子遊山復此巡. 好向壺天藏世界, 要從學海究源濱. 流光不與吾相待, 往躡無非已所親. 正是槐黃爭走日, 愛君堅坐翫書塵.”

誰把遺詩刻洞天 남긴 시를 그 누가 동천에 새기리

제9곡은 後谷曲으로 기세가 壯急한 산북폭포가 소재하는 곳이다. 청량산 장인봉 북쪽에 있는데 암벽이 가파르게 서고 그 가운데에 4~5장 높이의 飛瀑이 장관을 이룬다. 퇴계의 「觀聽洞瀑布」시에 보이는 ‘後谷奇觀’은 바로 이 후곡곡의 산북폭포를 지칭한 것이다.<sup>52)</sup> 퇴계는 반송정 가에 있는 관청동 폭포를 구경하고 시를 남겼지만 산북폭포는 미처 가보지 못했는데 관청동 폭포를 보고 지은 시에서 산북폭포의 장관을 상상하며 두 폭포를 비교하고 나중에 찾아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桃源은 복사꽃 핀 아름다운 桃源境으로 속세를 떠난 이상향을 뜻한다. 거리감을 드러내는 ‘杳然’은 고산구곡의 제9곡으로 설정된 〈후곡곡〉이 무릉도원과 마찬가지로 선경의 경치를 지닌 곳으로 속세와 아득히 단절된 공간임을 표시한다. 얼음 다리를 뜻하는 ‘氷橋’는 흔히 하천이 콩콩 얼어서 건너다닐 수 있게 된 것을 이르지만, 여기에서는 폭포수의 쏟아지는 형상이 얼음 다리와 비슷한 점을 들어 이렇게 표현했다. 폭포의 외면적 모습 뿐 아니라 흰색이 차갑고 맑은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飛瀑’은 이곳에 위치한 후곡폭포의 장쾌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무이도가』 제7곡의 비천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遺詩는 퇴계의 「觀聽洞瀑布」시를 지칭하는데 퇴계는 이 시에 후일 청량 후곡에 있는 폭포를 완상하고 싶은 뜻을 담았다. 당시 후곡폭포는 관청동 폭포에 비해 매우 壯急하다는 평판이 있었다.<sup>53)</sup>

52) 『淸涼志』山川條.

53) 『退溪先生續集』卷2, 「觀聽洞瀑布」, “高崖巨壁鑿何年, 怒瀉千尋白練懸. 響振巖林山鬼遁, 一區雲物屬靈仙. 崩雲瀉雪鬪轟霆, 下作泓澄一鑑明. 後谷奇觀定何似, 高尋他日較雄爭.”

광뢰 이야순의 고산구곡 시에서 자연과 인간 간의 본질적 관계를 읽어 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의상을 고산의 자연물에 이입하여 시 속에 혼연히 융화시켜 자연적 문제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형상화했다. 은둔 지향의 탈속적 정서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내면에는 학문 계승과 유학 실천의 대의를 위한 우환의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고산구곡 시의 표현적 특색은 의자적 태도를 견지한 그의 문학관에 기인한다. 외형적으로 단조롭고 고식적인 내용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토론하고 있다. 고산일대의 수려한 산수를 시적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현장의 흥취와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또한 구체적 형상을 기반으로 하기에 개성적 면모가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자연의 완상과 거기에서 얻어진 원천적 즐거움이 시구에 혼재되어 있다. 즉 학문과 수양을 통한 내면적 자아완성의 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유가적 범주 안에서 은둔적 관념의 긍정적 모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V. 도산구곡의 설정 과정과 영향 관계

도산구곡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만 아직 도산구곡의 설정 과정에 대해서는 논리적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도산구곡의 설정과 도산구곡 시가의 창작 확대 측면에서 먼저 광뢰 이야순이

---

翠壁高寒玉一圍，白龍飛下挾雷威。不知萬古鱸峯下，誰似青蓮巨筆揮。珍重山靈喜我來，更憐多病忌寒醅。不緣坼石爲窪白，今日何缺舉一杯。”

거론된다. 이야순은 「무이도가」의 차운시와 「陶山十八曲韻」을 지어 영양 주실에 거주하는 조술도에게 보내 차운과 품평을 요청했다.<sup>54)</sup> 여기에서 주목되는 바는 이야순이 처음에 ‘도산구곡’이 아닌, ‘도산십팔곡’을 지어서 조술도에게 차운과 품평을 요구한 점이다. 이야순의 「陶山十八曲韻」에 대해서는 그의 문집에 실려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조술도는 도산을 십팔곡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즉 천천과 황지 구곡은 퇴계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고, 또한 구곡을 부연해서 십팔곡으로 설정한 것은 장황하고 유묘한 것에 가깝다는 것이 그가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조술도는 자신의 필력이 쇠잔한 것을 이유로 ‘도산구곡’에 대해서만 차운시를 지어 보냈다.<sup>55)</sup>

이야순이 조술도에게 보낸 「陶山十八曲韻」의 존재에 대해서는 조술도의 조카 되는 趙星復문집에서 확인이 된다. 조성복은 조술도에게 보낸 이야순의 시를 보고 감동한 나머지 이를 차운하여 「도산구곡차운」과 「도산구곡이상구곡」을 남겼다. 그 내용이 그의 『鶴坡遺稿』에 수록되어 전하거니와 「도산구곡차운」과 「도산구곡이상구곡」을 합친 것이 바로 「陶山十八曲韻」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산구곡차운」의 곡명은 〈월천곡〉·〈오담곡〉·〈분천곡〉·〈석간곡〉·〈영담곡〉·〈경담곡〉·〈광퇴곡〉·〈천사곡〉·〈단사곡〉으로 구성되었고, 「도산구곡이상구곡」의 곡명은 〈백운곡〉·〈미천곡〉·〈경암곡〉·〈한속담곡〉·〈월명담곡〉·〈고산곡〉·〈청량곡〉·〈천천

54) 『鶴坡遺稿』卷1, 「武夷九曲次韻」, “時宣城漱石翁次武夷九曲韻, 又爲陶山十八曲韻, 寄呈晚谷從大父, 奉玩之餘, 不覺欽誦, 次韻拜呈.”

55) 『晚谷先生文集』卷2, 「李健之次武夷九曲 又作陶山九曲詩, 要余和之, 次韻却寄」, “穿川黃池九曲, 非先師杖履之所及, 且九曲而演爲十八曲, 近於張皇幽眇, 且衰孱筆力, 厘厘排比十九詠, 餘力已盡, 拙者之蹇步, 何能追駿蹄之闊步乎.”

곡)·〈황지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이야순 자신의 문집인 『광퇴집』에는 목판본과 필사본을 통틀어 「도산구곡이상구곡」이란 시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무엇보다도 조술도가 지적한 바와 같이 퇴계의 유적과 관련이 없는 황지와 천천을 ‘도산구곡’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이야순이 조술도에게 보낸 「陶山九曲以上九曲」이란 시가 이야순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곡명이 일부분 중복되는 「고산구곡」이란 『광퇴유고』에 수록되어 전해지는 것은 저간의 이러한 사정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시술의 문집에도 이야순의 도산구곡에 차운한 시가 실려 있는데 곡명이 조술도에게 보낸 것과 동일하며 「도산구곡이상구곡」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것은 이야순이 당초에 「도산구곡시」와 「도산구곡이상구곡」시를 짓고 주변의 인물에게 이에 대한 차운시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이 제시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도산구곡으로 통합시키고 「도산구곡이상구곡」은 곡명을 일부 수정하여 「고산구곡」으로 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곡의 설정 과정에서 공론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소유적 권한을 지닌 구곡 경영자의 창의적 구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방사족의 구곡 향유적 측면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변 사족의 공감과 동의가 구곡 설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다만 고산구곡과 도산구곡의 설정 과정에 있어서 이황의 「독유고산」과 「칠대삼곡시」가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설정 지역이나 곡명의 일치성, 시의 내용으로 보아 양자 간에 직접적 상관 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도산구곡의 설정에 있어서는 당대 사람

의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었기 때문에 이황의 두 시편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이황은 「무이도가」의 차운시를 남겼으나 도산구곡을 직접 경영하지도 않았고 도산구곡이란 명칭을 사용한 적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황이 지은 바의 「독유고산」은 내용적 측면에서, 「칠대삼곡시」는 형식적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후일 후학들이 도산구곡을 설정하는 과정에 뚜렷한 명분을 제공하면서 하나의 표준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도산구곡의 설정과 창작에만 한정된 영향이 아니라 조선후기 영남학파의 구곡 설정과 시가 창작에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이이순은 “칠대삼곡의 사이에 비록 이른바 구곡의 명칭은 없지만 언외의 뜻은 망령되이 생각할 수 있는 듯한 것이 있다.”<sup>56)</sup>는 주장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견해는 위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대를 곡명으로 삼아 설정된 백담구곡이나 동계구곡 등은 「칠대삼곡시」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구곡시가 서시를 포함하여 10수로 이루어진 것과 「칠대삼곡시」가 10수로 구성된 점도 도산구곡의 설정과 여타의 구곡시가의 창작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상정된다. 이황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후학들은 이 「칠대삼곡시」의 형식을 통하여 이를 도산구곡 설정과 경영에서 명분으로 활용했다. 특히 동계구곡의 臺詠이 퇴계의 九臺韻을 차운하여 지어지는 등 구곡의 설정이나 구곡 시가의 창작에 하나의 전범으로 수용되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sup>57)</sup> 요컨대 영남 지역의 퇴계학파에게는 주자와 퇴계

56) 『後溪集』卷2,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其於七臺三曲之間, 雖無所謂九曲名稱, 而言外之意, 有若可以妄想乎.”

57) 『貞山先生文集』卷1, 「東溪九曲」, “道岡之東溪, 自霞巖至仙巖, 有九曲. 九曲又有層巖巨石, 斷如臺形者, 亦九焉. 戊午夏間, 一旬遊一曲. 會日, 用朱夫子武夷權歌十首韻, 臺詠則

의 학문 사상을 자신들이 계승하고 있다는 자의식의 소산으로서 구곡 경영과 창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황의 「獨遊孤山」은 자신의 문집에만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산 주인'의 문집인 『성재집』에도 전문이 실려 있다. 즉 금난수의 문집 부록에는 「孤山亭題詠」이란 제목 하에 고산을 노래한 시편이 풍부하게 채집되어 있다.<sup>58)</sup> 모두 사우 간에 주고받은 시편을 모은 것으로, 이 가운데 이황의 시는 「題孤山絕壁」, 「再遊孤山」, 「仙鶴臺」, 「獨遊孤山」 등 8題 14수가 실려 있다. 그런 점에서 이황의 「獨遊孤山」은 그 내용이나 창작 과정의 측면에서 영남의 처사적 문인들에게 산수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도산구곡의 설정에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작품은 이황의 「七臺三曲詩」로 생각된다. 이황은 월란암 근처에 산이 물에 임해 끊겨 臺形을 이룬 곳과 물이 산을 돌아 굽이를 이룬 곳을 골라 칠대와 삼곡의 이름을 짓고 각각 시를 남겼다. 칠대는 〈招隱臺〉·〈月瀾臺〉·〈考槃臺〉·〈擬思臺〉·〈朗詠臺〉·〈御風臺〉·〈凌雲臺〉를 이르고, 삼곡은 〈石潭曲〉·〈川沙曲〉·〈丹砂曲〉을 가리킨다. 「고산구곡」과 「도산구곡이상구곡」의 곡명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중복된다는 점도 주목이 된다. 당초에 이야순은 고산구곡의 설정 과정에서 금난수의 후손되는 琴元禮와 상의하여 고산구곡의 제7곡을 芙蓉潭으로 정하고자 했다. 그렇게 되면 제8곡은 박석이 되고, 제9곡은 청량에서 그치게 되어, 청계 이상은 모두 한 곳으로 억지로 끌어다가 구별 짓

又次退陶先生九臺韻，示諸君子，要和。”

58) 『惺齋先生文集』卷4, 附錄, 「孤山亭題詠」조에는 李滉·李文樛·趙穆·權東輔·琴輔·吳守盈·金克一·金富儀·金就礪·具鳳齡·鄭琢·琴應夾·金富倫·權好文·鄭惟一·裴三益·權文海·金命元·尹斗壽·尹根壽·金誠一·鄭崑壽·李陽元·琴應燠·柳成龍·金功·禹性傳·宋言慎·李계·洪聖民·俞泓·鄭述·沈喜壽·柳根·李恒福·洪履祥·韓浚謙·鄭礎·金珥壽·申之梯·吳億齡·楊士奇 등 42인의 시가 실려있다.

는 혐의가 있었다. 또 부거라는 명칭도 금난수의 「고산제영」이나 퇴계의 시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에 휩싸일 소지가 있었다. 이에 퇴계가 후곡 폭포의 壯觀을 보고 싶어 했다는 점, 거리가 고산에서 그리 멀지 않아 충분히 경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거를 빼버리고 후곡을 고산구곡의 제9구곡으로 배치한 것이다.<sup>59)</sup> 그러나 이야순의 이같은 고산구곡 설정에 대해 비판의 견해가 없지 않았다. 금난수의 후손되는 금서술은 『廣瀨稿』에 수록된 「孤山九曲詩」를 보다가 후곡을 제9곡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긍할 수 없는 뜻을 시를 지어 비판했다. 그는 이야순이 지은 '詩調', 즉 고산구곡 시가 지닌 문학적 수준은 인정하면서도 청량산을 구곡의 궁극처로 삼아 제9곡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표명했다. 후곡을 하나의 동천으로 배치할 필요가 없음을 강도 높게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60)</sup> 이야순은 금원례에게 편지를 보내 지명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황은 시가 학자에게 있어 긴절한 일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좋은 경치를 만나 흥이 나면 시가 없을 수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sup>61)</sup> 역설적이게도 평소에 시 짓는데 공을 많이 들인 퇴계는 정경과 흥취를 표현해 내는 데에는 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59) 筆寫本 『廣瀨先生文集』 「孤山九曲」 後序. “往於孤山日, 與禮友議七曲欲占之以芙蓉潭, 八曲則博石也, 九曲則止於清涼矣. 更思之, 凡青溪以上, 渾是一處貼近, 而有牽強區別之嫌, 且芙蓉爲名, 初無見稱於惺翁孤山題詠, 又不載吾先詩中, 今吾輩之特因鄉音, 而遽立標號, 得非生硬乎. 遂舍之而以後谷終焉. 先詩之嘗擬高尋壯觀者, 實後谷瀑布, 亦於孤山不甚相遠, 而足爲管領, 故更鋪排如是耳.”

60) 『素無軒文集』卷1, 「按廣瀨稿孤山九曲詩, 以後谷爲第九曲. 蓋以老先生有瀑布詩, 而清涼以下, 有難標號排列之成爲九曲故也. 然終恐有未然者, 謹次第九曲韻, 以見愚意, “廣翁詩調動鏗然, 指點烟霞日洞川. 清涼自是將窮處, 不必牽排更覓天.”

61) 『退陶先生言行通錄』卷5, “詩於學者, 最非緊切, 然遇景值興, 不可無詩矣.”

퇴계는 성정에 감동되는 것이 있으면 시로 표현해 내곤 했는데 성정에서 우러난 온유둔후한 실속을 지닌 시가 참된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루하고 인색한 마음을 씻어내고 감발 융통되게 함으로써 성정을 순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시를 짓는 목적을 두었다.<sup>62)</sup> 영남학파의 구곡시가의 창작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회 문화적 추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조선후기 정계에서 소외된 영남 남인들은 타의에 의해 받아들여진 삶의 모습으로 현실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지닌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은 현실 세계를 벗어나 자연 속에 머물며 공감하면서 집단 의식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도산구곡의 설정과 향유도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된 조선후기 퇴계학과 문인학자들의 새로운 삶과 문화를 추구하는 이상적 방식이었다. 또한 계파적, 계보적 측면에서 구곡시가 창작의 배경과 목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선현의 학문을 자신들이 계승하고 있다는 학문적인 연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지역의 퇴계학파에게는 도산서원과 청량산은 성리학이 전개되는 성지로써 정신적 귀의처였다. 그런 만큼 도산구곡의 설정과 창작, 그리고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次韻 詩作을 요청한 사실은 학문적 결집을 공고히 하는 기제로서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도산구곡의 경내에 '고산구곡'과 '대명동구곡'이 설정된 것도 퇴계학파의 발전 계승에 따른 분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도산구곡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소 유연해질 밖에 없는 사정이 작용했던 것이다.

---

62) 『退溪先生文集』卷43, 「陶山十二曲跋」

## VI. 맺는말

청량산 동구의 고산 일대는 자연환경과 역사문화가 결합한 유가적 이상향의 전범을 제시한다. 이황은 이곳의 산수를 아껴 자주 찾았지만 진정한 유람은 46세 무렵 귀향해 있을 때 이루어졌다. 그는 고산에 '혼자' 가서 노닐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거처하는 퇴계로 돌아왔다. 이 때 勝境과 조우하여 증석에서 지은 시편이 모두 7언 절구 9수로 구성된 「獨遊孤山」이란 제하의 연작시이다. 이 작품은 후학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수용되어 많은 차운시를 남기기도 했는데 조선후기에 이르러 도산구곡의 倣作에도 전거로 제시되었다. 이황의 후손으로서 가학을 충실히 계승한 이야순은 도산구곡 경내에 특히 고산구곡을 설정하고 관련 시가도 남겼다.

광희 이야순은 영남학과 학자간의 결속적 교류를 주도하면서 구곡의 설정과 창작에 집단적 결집을 이끌어 낸 인물이다. 그의 생애에 드러난 학문적 求道는 가학적 소양과 광범위한 사우관계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영남학파의 동질성 회복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산구곡, 퇴계구곡, 옥산구곡의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구곡시가 창작의 유행을 선도했던 것이다. 그의 「고산구곡」은 탈속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산수생활의 이상을 노래한 작품으로, 퇴계학 중심의 영남 사림에게 있어 이러한 閑情의 세계는 관념적 의식세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되는 체험적 진정성을 지니고 있다. 이점은 정치적으로 좌절되어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학문적 실천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고 밝은 내세를 기약하고자 하는 선비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한 것과 다름 아니다.

요컨대 구곡 문화의 향유는 오늘날에도 자연 속에서 느끼는 원천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바꾸어 말하면 자연적 풍광의 감흥만이 아니라 도덕적 치유의 공간으로 적합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현재적 계승차원에서 구곡의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고도의 인문적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주변의 역사적 유적들과 연계한다면 심성 함양의 교육적 장소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자연과의 공생이 앞으로 인간의 절대적 생존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거나와 조선시대의 구곡문화는 오늘날에도 자연환경의 보존 관리, 생태적 삶의 향유 측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정신적 유산인 것이다.

## 참고문헌

『艮齋先生文集』 『古文眞寶』 『廣灑先生文集』 『克庵文集』 『克齋先生文集』 『晚谷文集』 『石洲遺稿』 『惺齋文集』 『素無軒集』 『謏聞瑣錄』 『吾家山誌』 『貞山文集』 『芝厓遺稿』 『餐霞遺稿』 『淸涼志』 『退溪文集攷證』 『退溪文集外集』 『退溪文集』 『退溪先生續集』 『退陶先生言行通錄』 『霞溪文集』 『鶴山文集』 『鶴坡遺稿』 『檜山文稿』 『後溪集』

신호열, 《국역 퇴계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이가원, 《退溪詩譯註》, 정음사, 1987.

김동준, <16세기 누정한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이민홍, <士林派文學研究: 武夷權歌受容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4.

강신애, <朝鮮時代 武夷九曲圖의 淵源과 特徵>, 《美術史學研究》 254, 한국미술사학회, 2007, 5-40쪽.

- 권오영, <퇴계의 「도산잡영」의 理學的 含意와 그 전승>, 《韓國漢文學研究》 46, 한국한문학회, 2010, 93-128쪽.
- 김문기, <도산구곡 원림과 도산구곡시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193-233쪽.
- 김문기, <陶山九曲詩의 作品 현황과 創作 경향>, 《퇴계학과 유교문화》 45,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 221-255쪽.
- 김봉건, <강 따라 피어난 전통문화와 찬란한 문화유산 : 미래 창조의 원동력 '문화가 흐르는 강'>, 《과학과 기술》 통권493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0, 49-55쪽.
- 노재현, <구곡원림의 원류, 중국 무이구곡(武夷九曲)의 텍스트성 - 국내 전승(傳承) 과정을 중심으로 ->, 《韓國造景學會誌》 36 No.6, 한국조경학회, 2009, 66-80쪽.
- 민주식, <조선시대 지식인의 미적 유토피아 - '武夷九曲'의 예술적 표현을 중심으로 ->, 《미학》 26, 한국미학회, 1999, 23-51쪽.
- 박명희, <15~6세기 전남지역 문인의 詩壇形成과 山水美 표현>, 《동방한문학》 제 26집, 동방한문학회, 2004, 259-287쪽.
- 방동인, <한국의 강과 문화>, 《정신문화연구》 5 No.4, 한국학중앙연구원, 1982, 24-26쪽.
- 유재빈, <陶山圖 연구>, 《美術史學研究》 250·251, 한국미술사학회, 2006, 187-212쪽.
- 유준영, <조선시대 "遊"의 개념과 지식인들의 山水觀 : 동아시아 예술에 작용하는 "遊" 개념에 관한 試論>, 《美術史學報》 11, 美術史學研究會, 1998, 89-113쪽.
- 윤천근, <물의 사상, 물의 문화, 동서철학연구> 제59호, 한국동서철학회, 2011, 387-416쪽.
- 임노직, <퇴계의 무이도가 수용과 이아순의 도산구곡 고찰>, 《동아인문학》 20, 동아인문학회, 2011, 421-450쪽.
- 최영성, <조선유학사에 있어서 도산학의 의의와 위상>, 《한국 철학논집》 17, 한국 철학사연구회, 2005, 7-42쪽.
- 홍은빈, <중국 山水詩의 본질 재조명>, 《중국어문논총》 34권, 중국어문연구회, 2007, 97-118쪽.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It is a Stroll Away from the Mountain by  
Himself(獨遊孤山)」 of Lee-Hwang(李滉) as  
「Gosan-nine Valley(孤山九曲)」 of Lee-Yangsun(李野淳)

Lim, No-Jig

Gosan-nine Valley are equipped with nine flowing terrain located on the river set in gosanjeong(孤山亭) one located under the cliffs of Cheongnyangsan(淸涼山) Gasong(佳松). Gosanjeong surrounding mountains and is enclosed in and out like a folding screen, towering tall,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shows off the beautiful scenery. As the River of Rakcheon here is where the Confucian Korea smoked the flowers. Toegye(退溪) teacher just to train a number of scholars from Dosan school near the Rakcheon River formed a huge flow of Yeungnam School.

Rakuten is a journey of nine valley turn is equipped with a complete philosophy of Toegye contemplation, even today, it still has to frame value awaken the mentality torn regain himself. Toegye teacher was home to around 46 years of age. When he left the city the same picture every time you discover the beautiful scenery while walking alone to find this place often.

However, the name of the nine valley was set for the first time by the descendants of Lee-Hwang. In other words, Lee-Yangsun set the order's nine valleys as well as the creation of poetry and said to mea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It is a stroll away from the mountain by himself.(獨遊孤山)」 and 「Gosan-nine Valley(孤山九曲)」 to suggest a correlation between two Between two works in detail. Two

works of literature in succession and developmental point of view has a close relationship. In the late Joseon literary creation because it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itative.

Artwork nine songs valley is an ideal literary form was accepted by scholars residing in the province. Not only in the creative aspects of literature it affected the setting of the another regions. There are nine valleys of the other names are duplicated on the inside of the nine valley can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It is a stroll away from the mountain by himsel(獨遊孤山)」 of Lee-Hwang (李滉) and 「Gosan-nine Valley(孤山九曲)」 of Lee-Yangsun(李野淳) These two works are works that are noted to be one of the criteria to be examined to understand historical context and literary tradition, succession process.

**Key Word**

孤山(Gosan), 孤山九曲(Gosan-nine Valley), 山水(Natural landscape), 李滉 (Lee-Hwang), 李野淳(Lee-Yangsun)

▪ 논문투고일 : 2016.7.8. 심사완료일 : 2016.8.16. 게재결정일 : 2016.8.17.